논어 9편 자한 24장 · 원문·풀이

# 子曰：「法語之言，能無從乎？改之爲貴。巽與之言，能無說乎？繹之爲貴。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

독음 · 자왈 법어지언 능무종호 개지위귀 손여지언 능무열호 역지위귀 열이불역 종이불개 오말여지하야이의

쉬운 풀이(요약) · 바른 충고는 따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고쳐야 한다.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은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뜻을 살펴야 한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法 법 법 / 語 말씀 어 어

之 갈 지 / 言 말씀 언 언 / 能 능할 능 능 / 無 없을 무 무

從 좇을 종 종 / 乎 어조사 호 / 改 고칠 개 개 / 爲 할 위

貴 높을 귀 귀 / 巽 사양할 손 손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說 기쁠 열

繹 삭일 역 역 / 而 말이을 이 / 不 아닐 불 / 吾 자기 오 오

末 끝 말 말 / 如 같을 여 여 / 何 어찌 하 하 / 也 어조사 야

已 이미 이 이 / 矣 어조사 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